

[성구]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18)



계신총회보

발행처: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총회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29-1
우편번호: 12736
발행인: 박세덕
편집인: 윤성천
전화: 031-768-1980
팩스: 0303-0944-2936



2025년 07월 01일 (화)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News (Kyesin) • 홈페이지: kyesin.org

제 146호 1

계신총회 5월 교단사경회

전국 교역자 및 성도 860여 명 참석...
복음의 은혜 충만한 시간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신총회가 주최한 2025년 5월 정기 사경회가 5월 5일(월) 저녁부터 8일(목) 오전까지 명륜교회(박세덕 위임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사경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역자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 한마음으로 모여 뜨거운 은혜와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둘째 날인 6일(화) 집회는 약 860여 명의 교단 소속 교역자 및 성도들이 참석해 교회의 부흥과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뜻을 함께 모았다.

7일 새벽에는 나영철 목사가 여호수아 6장 1-9절을 본문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고, 오전에는 윤석현 목사가 누가복음 15장 11-32절을 본문으로 삼아 「두 가지 잃어버림과 한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조명하였다.

오후 집회에서는 나은기 목사가 요한계시록 12장 1-18절을 통해 「말세 교회와 거대하고 붉은 용」이라는 말

씀으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의 사명을 힘 있게 선포하였다.

사경회 마지막 날인 8일 새벽에는 석진태 목사가 이사야 46장 1-7절을 본문으로 하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위엄을 전하였으며, 마지막 집회인 오전 시간에는 총회장 박세덕 목사가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본문으로 「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사경회를 은혜롭게 마무리하였다.

각 강사들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깊이 있게 조명했으며, 참석자들은 각 말씀마다 깊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

특히 본 사경회를 위하여 섬김과 헌신으로 수고한 명륜교회 당회와 성도들께 총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총회는 앞으로도 말씀 중심의 사경회를 지속하여, 교단과 교회가 더욱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도록 힘을 계획이다.

기사 남성호 목사

제38회 미주노회 정기노회, LA하우스교회에서 열려



제3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정기노회가 2025년 5월 20일부터 LA하우스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최병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장세종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기웅 목사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곧바로 2부 회의가 시작되었고, 김기웅 목사가 임시 의장으로 개회를 선언한 후, 총회서기 남성호 목사의 기도 본격적인 회무가 진행되었다. 신입회원으로 이재하 목사, 이시아 목사, 카렌 목사, 매니 목사, 마틴 전도사가 준회원으로, 김재현 목사가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특히 이번 신입회원 중 4명이 외국 출신으로, 미주노회가 단지 미주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넘어서 글로벌한 복음 공동체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부 보고에서 고시부장 황대원 목사는 LA하우스교회 이상훈 집사의 장로고시 통과를 알렸고, 내년부터 장로고시 시취 과정이 개정될 예정임도 함께 보고하였다.

선교부 보고에서는 니카라과, P국, 캄보디아의 선교 상황이 각 선교사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특히 작년 노회에서 결의된 ‘선교주간’의 시행 계획이 설명되었다.

‘선교주간’은 매년 3월 첫째 주를 지정하여, 노회 모든 교회가 ‘선교’를 주제로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가지는 특별한 주간이다. 이 기간을 통해 노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선교지 상황을 알게 되고, 함께 참여하는 선교동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노회 선교부는 각 선교지의 사역 소개와 기도제목을 정리한 자료와 배너를 제작하여 모든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서 총회 서기 남성호 목사가 총회 소식을 전한 뒤 임원 개선이 진행되었으며, 새 임원으로는 노회장: 김정오 목사, 총무: 김기웅 목사, 서기: 김성현 목사, 부서기: 최병석 목사, 회계: 김대현 장로, 부회계: 신현철 장로가 선출되었다.

한편, 이번 노회에서는 ‘미주노회의 동성애 등에 대한 입장문’이 결의되었다.

입장문은 총 6가지 선언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성애 및 성전환 등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들을 명백히 죄로 규정하고, 성경적 진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담고 있다. 동시에, 복음 안에서 회개와 회복 사역에 힘쓰며, 교회와 가정의 연합하여 다음 세대에 성경적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교육할 것을 밝혔다.

노회 본 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후, 21일 저녁에는 노회를 개최한 하우스교회에서 특별예배가 드려졌고, 총회장 박세덕 목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22일에는 노회원 전원이 함께 샌디에이고로 당일 여행을 다녀오며, 3일간의 미주노회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

기사 김성현 목사

2025-2학기 신입생 모집 ~2025.08.31 (주일)



www.kyeyak.co.kr

입학 상담: 010-3790-0159
진로 상담: 010-8781-7471
신앙 상담: 010-6779-5314

특전

- 1) 등록금 무료
- 2) 실시간 온라인 강의: 월화목 저녁6-9시 20분(ZOOM 사용)
- 3) 졸업자 혜택: 신학석사 장학금 지원, 본 교단 목사 안수, 선교사 파송, 여전도사 사역

과정

	신학연구	성경연구	편목
학기	6학기	8학기	2학기
기준	4년제 학위	고졸 이상	타교단 목회자
공통	수세 후 3년 이상, 당회장(담임 목사) 추천을 받은 자		

접수 방법

이메일(cts1969kr@gmail.com)
우편(서울 종로구 혜화로 3길 6 계약신학연구원)

제출 서류

홈페이지 양식(입학원서, 신앙고백서)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최종학력 성적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면접

9월 1일 개강일 3시 (현장 및 온라인)

설교



이승주목사
성광교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1-7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 경건과 단정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통치자와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 곧 천하 만민입니다(창 22:18). 시 67편에서도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28:19). 그러므로 바울도 본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기도와 전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 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1-3절)

1. 먼저 기도하는 자신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1절; 골 4: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자신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전 10:33에서 자신이 하는 기도의 본을 따르라고 명하고 있

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먼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기쁨과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시 35:13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병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간구는" 특별한 일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2.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단정은 신앙생활의 두 방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단정'은 신앙양심에서 나오는 언행심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누리게 되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신자로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골 2:10절) 이 말씀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왜 교회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밝혀 줍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란 말은 본문 1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시 141:2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계 8: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4-7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본문에 구원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 전수를 의미하지 않고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4-6)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란 전 세계 가운데서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행 10: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기도 같은 군대의 동료 지휘관들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도록 힘써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2.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5-7절)

본 절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4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참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참된 구원이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5:20).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원의 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골 1:29).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끝>



논 단

조영훈 목사
신암교회

교회와 세상 정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정치는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전 대통령의 탄핵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이 세상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회가 정치에 어떻게 관여를 해야 하는가 많은 혼란을 겪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이념 갈등은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편 가르기를 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 극단적인 이념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신뢰도는 급락하고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교인들도 나오고 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국가 정치와 교회는 세상의 속한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켰다(요18:36). 세상 나라의 불의한 정치에 항거하며 투쟁하거나 세상 권세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로마제국 시대에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이용하여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다. 종교 개혁 시대에 루터는 두 왕국 이론을 주장하며 영적 왕국과 세속 왕국을 구분하였으며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두 영역을 주장하며 서로 독립적 사명, 즉 국가는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신다. 세상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성례 치리 등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세상 국가는 정치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실현하며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 활동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교회나 교단이 특정 정치세력에 조직적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본다.

예수님 당시 로마제국이 약소국을 점령하여 불의한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반정부 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셨다(마 22:21).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가 된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딤후3:1, 벰전2:13-14).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왕과 관리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 혹은 무제한적 순종을 지시하는 말씀은 아니다. 불의하고 악한 정치에 대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비판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어긋난 정치에 불복종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동성에 합법화를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반성경적 반신앙적 반기독교적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하려 할 때 교회는 목소리를 내어 비판하며 불복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이기전 목사님과 같은 소수의 목사님들이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를 통해 불복을 호소하며 생명 내놓고 반대하며 신앙을 지켰다. 교회는 사회 참여를 통해 정치의 비도덕성과 불공정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러한 불복종의 상황은 비폭력적인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명령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명령을 잘 순종해야 옳다.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대항하거나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국가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된다(롬 13:2).

국가가 만일 성경에 위반되는 일을 강요하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에 주신 권세의 목적에 어긋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악용하여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성도가 당연히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여야 한다. 이런 일로 징벌이나 핍박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므로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마5:10-12). 다니엘의 세친구들은 금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며(단3:16-18),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강림 후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산헤드린 공회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치 않았다(행 4:18-19, 5:27-29). 국가의 권세자들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장려하여 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들의 명령이 성경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들을 순종하며 잘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에 굴복하도록 하였다. 국가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보호를 받게 되고,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온다. 성도가 그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만 아니고 양심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한다.

*참고-웨스티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4항. "모든 성도는 위정자들과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딤후 2:1,2)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벰전 2:17),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롬 13:6,7),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딤후 3:1; 롬 13:5). 위정자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은 위정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에 불복종할 권한이 없다(벰전 2:13,14,16). 이런 의무 수행에 있어서 교직자들도 예외가 아니다(롬13:1; 왕상 2:35; 행 25:9-11; 벰

후 2:1,10,11; 유 1:8-11). 한편, 교회는 세속적 문제들에 있어서 각 국가의 위정자들과 일반 백성에 대한 통치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설령 그들이 이단 사상이나 다른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황에게는 그들에 대한 통치권이나 생명을 박탈할 아무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살후 2:4; 계 13:15-17)."

성도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교회가 국가의 어용 기관이 되어도 안 되고, 반국가 운동을 하여도 안 된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언제나 교정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교회는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는 교회를 간섭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영적 구원 운동을 하는 기관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심을 입고 그의 지배와 통치만을 받는 기관이다. 국가는 자연 은총의 영역에 속하여 국민을 다스리는 세상 나라요, 교회는 세상 나라들을 초월해 있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기관이다(엡1:22).



전주 한빛교회

부활의 기쁨 전하는 지역 전도행사 열려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481-1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측) 한빛교회에서 지역 전도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장로회 소속 장로와 권사 약 10명과 한빛교회 성도 약 10명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전도활동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1부 예배에서는 장로회 회장 박천수 장로의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었다. 장로회 장로들이 특별찬송으로 찬송가 620장을 부르며 부활의 은혜를 찬양한 후, 임요셉 담임목사가 요한복음 21장 5-6절과 15절을 본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신 두 가지 당부”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임 목사는 설교에서 부활하

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당부, 곧 영혼 구원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 강조하며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했다. 2부 전도활동 시간에는 장로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떡과 한빛교회에서 마련한 생수 및 전도지를 손에 들고 교회 인근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떡과 생수를 건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했다. 한편 전주 한빛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측)에 소속된 교회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 전파와 봉사에 힘써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

기사 박천수 회장, 김동완 총무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 신학연구원생 탐방

- 배재학당과 정동제일교회 등 한국 근대 선교 유적지 방문 -



2025년 4월 24일, 이용주 목사와 계약신 약연구원 소속 신학연구원 학생 14명은 서울 정동 일대를 탐방하며 한국 기독교와 근대화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은 이종전 목사의 인도 아래 진행되었으며, 교육·선교·의료·여성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친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다.

탐방단은 먼저 서울시 기념물 제16호인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이곳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으로, 고종 황제가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했다. 박물관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신교육의 발상지이자 민족계몽운동의 요람이었

던 배재학당의 역사와 기독교 정신을 체험했다.

이후 찾은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로, 3·1운동 당시 두 명의 민족대표를 배출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어 방문한 이화학당과 보구여관 터에서는 메리 스크랜튼 여사의 여성 교육과 의료 선교 사역을 살펴보고,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이 여성 인권과 보건

향상에 끼친 영향을 실감했다.

마지막으로 증명전을 방문한 학생들은 을사늑약 체결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당시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을 신뢰했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탐방을 마친 후에는 이용주 목사의 배려로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고, 이어 명륜교회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들으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선교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일군 돌짜 밭 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이 땅의 근대화로 열매 맺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학연구원 학생반장 신승호 집사

동서울노회 도봉교회

입당감사에배



대한예수교장로회 도봉교회(담임 채희근 목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창립 55주년을 기념을 맞아 리모델링을 하고 입당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이날 예배는 새 성전 입당의 기쁨과 함께, 지난 세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 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채희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온 회중이 함께 찬송가 72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어 조충연 목사(동서울노회장/산소망교회)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김정경 목사(중회총무/우신교회)가 요한계시록 2:1-7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였다.

이날 설교는 박세덕 목사(계신 총회장/

명륜교회)가 “예배소 교회가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여 주었다.

박항우 목사(증경총회장/가락동부교회)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축사를 해주었고, 전언식 장로(도봉교회)가 은혜가운데 진행된 건축의 경과보고를 하였다.

온 성도와 당회가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예배당이 참으로 아름답게 건축되어,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단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하면서 채희근 담임목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기사 남성호 목사

대광교회 리모델링공사 및 사경회

전북익산에 있는 호남노회 대광교회(담임 김동현목사)는 2025년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25~27까지 증경총회장 고석남목사를 강사로 사경회를 개최하였다. 40여명의 성도로 구성되어있는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24년에는 교회진입로와 주차장을 확장하였고, 금년에 노후한 종탑과 교회지붕을 수리하고 더불어 교회 전면 테라스설치와 외장인테리어공사를 하여 교회를 깔끔하고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뒤이어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자 사경회를 개최하였으며, 노회산하 목회자와 성도, 또 교단 다수의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황리에 집회가 개최되었다. 강사 고석남목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주제아래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기사 고재승 목사



제4차 계신총회 청년연합수련회

계신총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연합수련회가 오는 7월 31일(목)부터 8월 2일(토)까지 2박 3일간 명륜교회 본관 및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Back to the Gospel)”로, 교단 산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교단 내 여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여 진행되며, 각 교회별로 역할을 분담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륜교회 청년부가 총괄팀을 맡아 전체적인 진행을 책임지며, 광흥교회가 셀팀,

상대원교회가 홍보팀, 도봉교회가 찬양기도회팀, 가락동부교회가 레크레이션팀을 담당합니다.

회비는 1인당 10,000원으로, 청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합수련회를 위해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교회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명륜교회 김광원 목사(010-5779-249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교육부 청년부연합수련회팀